



장애인 그리고 가족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

장애인시설 문 닫아 돌봄은 가족 책임으로... 발달장애 딸 둔 60대 어머니 “돌봄과 사투” 장애인들 외부활동 제한으로 ‘고립감’ 호소

정모(60·여·제주시 외도동)씨는 발달장애와 지적장애 1급을 가진 22살 딸을 두고 있다. 딸에겐 먹고, 입고, 씻는 모든 일들이 어머니가 없다면 혼자 해내기 버거운 일들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정씨는 코로나 사태에서 장애인 가족들의 가장 큰 고통은 가족들이 모든 돌봄을 오롯이 책임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딸은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다 오후 5시쯤 귀가했다. 하지만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이후 장애인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딸이 외출해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모두 사라져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된 것이다. 딸이 외출해있는 동안 개인적인 불일을 보거나 휴식시간을 가졌던 정씨의 일상도 이제 모두 딸에게 맞춰졌다. 정씨는 “지난달부터 일부 장애인 시설이 문을 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아이를 집에서 직접 돌보는 중”이라며 “4개월째 집에서 ‘돌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은 외부활동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다. 뇌병변·지체장애 3급인 윤모(66·여·제주시 한림읍)씨는 복지사 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물적·심리적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윤씨는 외곽지에 거주하는데, 1인 가구인 고령 장애인으로써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토로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제주장애인복지관에서 마스크, 생필품 등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공백이 생길 땐 난감한 상황이 많다. 코로나 사태 초기 마스크를 줄여서 사야 하는 상황에선 약국도 멀고 몸도 불편해 어려움이 따랐다. 윤씨는 “혼자서 외부활동이 힘들기 때문에 바깥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긴 느낌이 들 때가 많다”며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해 고립감이 든다. 안부를 확인해주는 등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5월 13-29일 복지관 이용 장애인 26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은 가장 불편한 점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35.4%·173명)을 꼽았다.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14.9%·73명), 의료용품 구입(13.5%·66명)이 뒤를 이었다. 이어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은 마스크·방역물품(55.1%·119명)이었고 생필품(27.3%·59명), 밀반찬(13.4%·29명)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관계자는 “변화하는 사회 복지 환경에 대응해 복지관 서비스 축소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다혜기자

“JDC는 버자야에 1200억 배상하라” 법원, 예래주거단지 손해배상 강제조정

버자야는 당초 3500억원 요구 양측 2주내 받아들이면 마무리

공사 중단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투자금을 낸 버자야제주리조트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20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안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30일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 제주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기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같은 내용으로 강제조정했다. 조정안은 버자야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3500억원보다 2300억원 적

은 1200억원을 JDC가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정안을 2주 안에 양측이 모두 받아들이면 강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이 사업은 버자야그룹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74만 1000㎡ 부지에 휴양콘도와 5성급 호텔, 의료시설, 박물관 등을 짓는 것이다. 버자야 측은 지난 2015년 3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중단되자 그해 11월 J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도교육청은 30일 오후 도교육청 4층 제3회의실에서 사용자(도교육청) 위원 6명, 급식 노동자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강희민기자

폭우에 강풍까지... 제주섬 피해 속출

가로수·지붕 ‘우수수’ 이틀간 25건 신고... 400t급 바지선도 떠밀려

이틀간 제주에 불어닥친 태풍급 강풍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고 주택 지붕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30일 낮 12시를 기해 전날 제주 육상에 내려진 강풍 특보를 모두 해제했다. 이번 강풍은 평균 풍속이 초속 10~16m로 태풍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기상청은 10분 평균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일 때 태풍으로 분류한다.

한때 제주에서는 초속 30m가 넘는 바람이 관측됐다. 주요 지점별 최대 순간풍속(초속)을 살펴보면 삼각봉 33.1m, 제주공항 31.1m, 윗세오름 29.5m, 성산 27.8m, 제주 27.2m, 선흘 26.2m, 고산 25.5m, 아리목 24.0m 등이다. 강한 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29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공사장에서 유리가 파손된 것을 비롯해 제주시 용담1동과 연동, 구좌읍, 한림읍 명월리 등에서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졌다. 또 제주시 연동에서는 주택 지붕 일부가 날아가는 등 이들 사이 모두 25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해상에서는 400t급 바지선이 강풍

에 떠밀려 1.8km 떨어진 해상까지 흘러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14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포구 밖 해상에 정박해 있던 바지선 A호(429t·승선원 2명)가 맞돌 4개 중 1개가 끊어져 해상으로 밀리고 있다는 신고를 해경이 접수했다. 해경은 A호가 정박해 있던 장소와 약 1.8km 떨어진 당산봉 절벽 근처에 좌초된 것을 확인하고, 구명줄을 이용해 B(79)씨 등 선원 2명을 구조했지만 이 과정에서 해양경찰관이 강한 바람을 못 이기고 깃바위에 부딪혀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제주 해상에 초속 18~20m의 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3~4m로 높이로 높게 일고 있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하늘길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항공공사 제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 29일 오후부터 이틀간 제주국제공항을 오갈 예정이던 32편의 항공기가 결항했다. 바닷길도 마비돼 전날부터 현재까지(오후 4시 기준) 7개 항로에서 8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과 우리나라 부근의 고기압의 기압차가 30hPa에 달할 정도로 매우 컸던 것이 강한 바람이 불게 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29일 강풍으로 인해 제주시 연동로 한 공사장 안전펜스가 무너졌다. 강민성기자

“교육감님, 이 손가락이 베인 건가요” 어제 급식소 노동자 사고 산업안전보건위 열려

제주 학교 급식소 노동자가 ‘음식물 쓰레기감량기’에 의해 손가락이 잇따라 절단된 것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피해 사실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은 30일 오후 4시 도교육청 4층 제3회의실에서 사용자(도교육청) 위원 6명, 급식 노동자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2018년 10월(오른쪽 중지 한마디 절단), 2019년 5월(오른쪽 검지 절단·봉합 실패), 12월(오른쪽 중지와 약지 골절·손가락 퍼지지 않는 장애 발생), 올해 5월 22일(손가락 1개 절단, 3개 골절·회복 여부 미지수) 등 학교 급식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에 의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하지만 이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개최 전부터 각종 문제가 터져나왔다. 사용자 측은 도교육청이 2018년 사고에 대해 ‘절단’이 아닌 ‘베임’으로 인지했으며, 사용자 대표인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약속한 ‘감량기 안전사고’와 ‘학교 급식 노동자 폭력 대책’이 심의안건에서 빠져 버린 것이다. 먼저 2018년 10월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로부터 ‘자상’이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은 해명했다. 이어 심의안건 문제는 이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노동자 위원들이 항의하자 그제서야 심의안건으로 등록했다. 한편 회의 결과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적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감, 탐나는봉

가정원에(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새미해,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은, 탕자묘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병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귀주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